

# 정기 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15년 2월 17일(화) 16:10-17:30

□ 개최장소 : 여의도 렉싱턴 호텔 회의실

□ 총이사수 : 7명

□ 출석이사 : 이경준 이사, 이태웅 이사, 윤형주 이사, 한정국 이사, 박영희 이사, 박성남 이사 이상 6명

□ 출석감사 : 이천화 감사 이상 1명

## □ 개회선언

▶ 이경준 이사장 :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 6명이 참석하여 주셨으므로 2015년도 정기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정기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1호 의안> 이랜드재단 감사 보고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먼저 법인의 감사이신 이천화 감사님께서 이랜드재단의 2014년 결산에 대해 감사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 이천화 감사 : 2015년 1월 28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에 의거 사무국에서 제출한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보고서 및 수지계산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기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이랜드재단의 2014년 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재단법인 이랜드재단의 정관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비영리기관의 회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문제없이 작성되었고 기타 중요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이랜드재단 법인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과 회계프로그램 활용을 효과적으로 잘하여 페이퍼워크의 양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업무개선이 있었습니다. 행정 및 회계업무시스템의 개선도 관계기관을 포함 다른 비영리단체에 홍보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복지사업 뿐 아니라 행정회계업무에 대한 사례지원도 재단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에서 출자를 받아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랜드클리닉은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과거에 누적된 결손액을 모두 보전하였습니다. 향후 법인세를 내야 하는 긍정적인 고민까지 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 절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이랜드재단에서 출연하였던 출연금을 일부 상환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수익에 대해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의 목적사업비를 위해 법인으로 전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랜드클리닉 경영진들이 수고를 많이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진단 설비 중 사용연수가 오래된 장비들이 많아 추가적으로 구입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 자금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인과 조율을 해서 자금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신성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제 2호 의안> 이랜드재단 2014년 결산·사업결과 및 2015년 예산·사업계획(안) 심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다음은 정영일 사무국장께서 재단의 2014년 결산 및 사업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일 사무국장 : 2014년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랜드재단 2015년 정기이사회 자료집의 8페이지 결산서를 보시면 2015년도 예산액은 2,746,226,000원, 결산액은 2,748,282,357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 중 이랜드클리닉으로부터 6억원의 출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3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랜드재단에서 25억원을 출자하였으나 오랫동안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랜드클리닉의 흑자 전환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액 상환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 중 해외사업을 계획하였는데 사업조정으로 인해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학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으며 재단은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대상자를 찾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업 진행이 다소 미진하였습니다. 향후 인큐베이팅 교육비지원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클리닉은 2014년 매출액이 4,28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5%성장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933백만원이고 전년대비 14.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68백만원이며 이 부분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순수익의 반 정도로 설정하여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이랜드클리닉은 평생 건강 지원센터의 방향으로 큰 그림을 잡고 있습니다. 기업 임직원 전문 건강검진센터의 모형을 찾고 있고, 2020년까지 약 2배 정도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랜드클리닉은 기존의 진행중이었던 지방노인복지관의 어르신 건강검진을 4회(1,580명) 진행하였으며 이보다 더 자원봉사를 통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포커싱을 맞추어 외국인 무료 검진을 진행하기로 하여 두 달에 한 번씩 휴무일인 토요일에 검진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 153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료 검진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경준 이사장 : 2015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지난 번 임시이사회에서 준예산으로 결의되었지만 정기이사회에서 변경된 본예산으로 보고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5년 본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해 정영일 사무국장께서 계속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영일 사무국장 : 이사회 자료집 26페이지 이랜드재단의 예산서를 보시면 2015년 본예산은 지난

해 보다 약 47억원이 증가된 7,419,852천원입니다. 2015년도에 크게 변화 된 것은 재단의 사업영역을 재설정하고 신규 사업을 계획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활성화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때 마다 재단의 사업영역에 대한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에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이랜드클리닉의 흑자전환으로 재단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계획한 사업 중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위기가정지원 사업(인큐베이팅)이며 그 외 미자립시설, 리프레쉬투어 등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은 정부나 다른 기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진 사업으로 성장시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랜드클리닉은 건강관리센터,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건강검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객 생소리를 듣고 플로어 최적화 관리, 피크타임 운영, 고객관리 아카데미에 대한 3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웠으며 사람이 하는 것 대신 전산화시스템을 위해 RFID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검진센터와 같이 전자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을 적용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응대에 있어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증가시키는 교육을 위해 표준응대화시스템, 고객군별 상담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매뉴얼 및 시스템화 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는 올해에 비해 약 10% 성장 목표를 잡고 단체검진 23억원, 개인검진 10억원으로 건강검진을 통한 매출로만 3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진료수익과 기타수익 5억원을 포함하여 총 38억원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랜드클리닉은 이랜드 그룹 의존도가 약 65~70%정도 됩니다. 향후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외부 기업체의 검진 비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준 이사장 : 이랜드재단의 2014년 결산 사업결과 및 2015년 예산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형주 이사 : 클리닉 검진 중 이랜드 그룹의 의존도를 왜 줄이려고 합니까?

▶ 정영일 사무국장 :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때 이랜드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장이 아닌 기업의 임직원을 위한 의료기관이 아닌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 이태웅 이사 : 현재 이랜드클리닉의 의료진 및 의료의 수준이 상.중.하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의료진이 계속 발전해나가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가 시정을 위해 어떤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정영일 사무국장 :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강검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내년 목표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며 실력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의료진이 많이 부족한건 사실이지만 주어진 일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 한정국 이사 : 이직의 비율 및 의사는 몇 명입니까?

▶ 정영일 사무국장 : 사실 의료진이 너무 많이 교체된다는 이랜드 그룹 직원들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는 이직률이 없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풀타임 5명, 파트타임 1명입니다.

▶ 박영희 이사 : 재단의 대표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장학사업의 존립과 방향성에 대해서 변화하는 정책에 따라 이제는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영일 사무국장 :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장학사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형주 이사 : 2015년 재단의 사업이 재조정되고 활성화 될 것에 대해 기대가 많이 됩니다. 현재까지 재단이 과업을 잘 수행해 왔고 앞으로 인큐베이팅 사업을 잘 진행해서 재단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이 사업을 통해 어려운 빈곤가정에 희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영일 사무국장 :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하여 지원하는 일을 위해 힘쓰며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그럼 이랜드재단 2014년 결산·사업결과 및 2015년 예산·사업계획(안) 심의 건에 대한 본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 : 동의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본 건 '이랜드재단 2014년 결산·사업결과 및 2015년 예산·사업계획(안) 심의 건'이 결의 되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이상으로 본 이사회의 안건이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사무국에 위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 정기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폐회시각 17시 30분

2015년 2월 17일

재단법인 이랜드재단

이사장 이 경 준 (인)



이 사 이 태 응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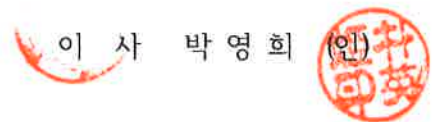
이 사 윤 형 주 (인)



이 사 한 정 국 (인)



이 사 박 영 희 (인)



이 사 박 성 남 (인)



감 사 이 천 화 (인)

